



白瑩鉉 · 朴賢緒 부부

<고려대 공대 금속공학과 교수> <경희대 가정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유학때 熱愛 ... '학문탐구 하모니' 30년

65년 미국 유학중 친구의 여동생과 만나 3년만에 결혼한 고려대 백영현교수와 경희대 박현서교수부부는 오는 12월이면 결혼 30돌이 된다.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나와 미국 유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백교수는 현재 대한금속공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인인 박교수는 미국 오리건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현재 경희대 가정대학장으로 후진 양성에 정열을 쏟고 있는 대표적인 과학자 부부이다.

백영현교수(고려대 금속공학과, 61세)와 박현서교수(경희대 식품영양학과, 58세)는 가정이나 사회 모두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성원간의 하모니를 이루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학문 탐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서로의 이해와 도움으로

부부가 모두 학자로서 자신의 세계에 몰두하다 보면 서로에게는 물론 가족 등 주위에 자칫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도움, 자신의 일에 대한 성실 성 등을 통해 하모니를 이루지 못한다면 모든 일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는 물론 가족들에게 매우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어려웠던 유학시절에 마음의 위로가 돼줬던 상대방과 두사람의 학문 성취를 위해 손자들을 홀로 책임지고 키워주셨던 어머니가 아니라면 지금의 학문적 성취는 어려웠으리라는 생각이다. 금속공학과 영양학을 전공한 백교수와 박교수는 65년경 미국 유학중에 만나 68년 12월 결혼했다. 한국에서 생물학을 전공하였던 박교수는 64년에 먼저 도미하여 위스콘신(Wisconsin)대학에서 생화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백

교수는 1년 정도 늦은 65년에 도미하여 유타(Utah)대에서 금속공학을 공부하게 되던 때였다.

전화료만 한달 2백달러

친구의 동생이었던 박교수에게 빠진 백교수는 서로 떨어져 있던 탓에 한달 방세가 45달러였던 당시 전화비로만 한달동안 장학금 전액에 맞먹는 2백달러 가까이를 탕진했다고 회상한다. 생화학 분야의 석·박사학위 과정을 공부 중이던 박교수는 결혼 때문에 공부를 중단하는 등 학문적 위기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백교수와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박교수는 귀국 후인 74년에 다시 홀로 도미하여 공부를 계속하였다.

금속공학 중에서도 금속제련이 전공인 백교수는 과거 10년간 용강(liquid steel) 중의 비금속개재물(nonmetallic inclusion)에 대한 생성, 물성, 형상에 대한 연구로부터 이의 제거법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해왔다. 백교수는 비금속개재물의 제거법으로는 부상(float), 흡착, 여과 등의 분리법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고급의 청정강을 얻기에는 비경제적이며 부적합해 근래에는 전자장(electromagnetic field)을 이용하여 개재물 입자를 분리하려는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한다.

백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계면하전특성을 이용하여 용융금속으로부터 비금속 개재물의 분리, 용융금속 중에 금속산화물의 분산, 개재물간의 상호반응 등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한편 학회 활동도 적극적인 백교수는 현재 대한금속학회 회장으로서 과총이 추진하고 있는 학회의 정보화, 국제화의 정책

에 부응하여 학회행정의 전산화는 물론 학회를 포함하는 관련정보들을 세계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 정보화 하는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또한 학회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하여 국제 심포지엄 개최, 학회 영자지「Metals and Materials」의 내실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백교수는 대학교수로서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저서를 하나 남기는 것이 소박한 바람이라고 말한다.

가정대학장 보직까지 맡아

박교수는 현재 경희대에서 가정대학 학장이라는 보직을 맡고 있으며, 학회에서는 한국영향학회 부회장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개혁 바람 속에 학장이라는 보직을 맡아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정리해야 할 일이 산재해 있어 연구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해오던 연구를 중단하기는 더욱 어려워 연구 활동에도 충실하려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박교수는 지난 20년동안 70여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주된 연구로는 식이요법으로 대장암 발생률을 낮추고 동맥경화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이에 대한 생화학적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잉선전의 우려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중 DHA에 대한 연구와 또한 우유나 유제품에 함유되어 항암효과가 있고 비만치료 효과가 있다는 CLA라는 지방산에 대한 연구도 진행중이라 한다. 박교수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식생활을 조절함으로써 세포의 유전인자에 변화를 주어 질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 한진(뒷줄 왼쪽), 한성(뒷줄 오른쪽), 박현서(앞줄 왼쪽), 백영현(앞줄 오른쪽) 교수

을 규명하는 기초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국민 전체가 영양에 관한 과잉된 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전문가의 참된 의견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가 오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말한다. 또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현재 한국에는 국민 영양을 위한 제대로 된 연구소 하나 없을 정도로 영양학에 대한 인식이 낮아 아쉽다며 이의 개선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백교수는 61년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후, 69년 미국 유타대에서 금속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72년 이후 고려대 금속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금속공학회장을 맡고 있다. 박교수는 64년 성균관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77년 미국 오리건주립대에서 영양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77년부터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해 오던중, 현재 가정대학장을 맡고 있다.

슬하에 한진(29세, 도미 유학중)과 한성(28세, 고려대 재학중) 2남을 두고 있다. ⑤7 송해영<본지 객원기자>